

대학생용 대인 간 경계존중인식척도 개발 및 표준화 연구

한승희* · 김영자** · 정소희*** · 조성순****

Ⅰ 알기 쉬운 개요

대학생들은 교수·선배·동기·연인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생활 침해, 동일한 선택에 대한 압박, 명분을 앞세운 차별, 강압적 요구 등 여러 형태의 '선을 넘는 행동'을 경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 즉 '경계'란 타인이 나에게 어느 정도까지 접근하거나 관여해도 괜찮은지를 가능하는 기준으로, 당사자가 허용한 심리적·물리적·사회적 선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동은 친밀하거나 위계적인 관계에서 더 쉽게 나타나며, 단체 채팅방이나 SNS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대인 간 관계에서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 그러나 경계는 개인의 판단뿐 아니라 관계의 맥락과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와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해 친밀함이나 관행 등의 이유로 대인 간 경계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불쾌감이나 위축을 주고 관계 갈등이나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을 '경계침범'으로 인식하는지, 그리고 그 허용 기준에 어떤 공통점과 개인차가 존재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대인 간 경계존중인식 척도를 개발하고, 총 1,029명의 자료를 분석해 신뢰도와 타당도, 그리고 해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최종 척도는 7개 영역, 30문항으로 구성되며, T점수 기준과 4단계 인식군을 제시한다. 이 척도는 대학의 상담·교육·인권 정책 현장에서 학생들의 경계 인식 수준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 문화를 조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 * 경북대학교 인권센터 전문위원, 제1저자, hrc6400@knu.ac.kr
- ** 대구공업대학교 사회복지경영계열 조교수, 공동저자, dopeung860@hanmail.net
- *** 대구대학교 청소년상담복지학과 교수, 교신저자, jjjid@hanmail.net
- **** 대구한의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연구원, 공동저자, saintsun@hanmail.net

투 고 일 / 2025. 9. 8.
 심 사 일 / 2025. 11. 11.
 심사완료일 / 2025. 11. 26.

Ⅰ 초록

경계는 타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영역에 대해 '여기까지는 허용되고, 그 이상은 침범'으로 인식되는 심리적·물리적·사회적 선을 의미하며,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다. 대인 간 관계에서 경계 설정은 개인의 인식과 결정에 기초하지만, 무엇이 경계침범으로 인식되는지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와 규범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경계침범은 개인 간 갈등뿐 아니라 대학 환경의 위계와 집단 규범 속에서 인권침해 문제로 확장될 수 있으므로, 대학생들의 경계존중에 대한 인식과 그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대인 간 경계존중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학 생활에서 경험한 경계침범 사례에 대한 개방형 응답을 토대로 초기 문항을 구성하였다. 예비조사(n=330)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7요인 30문항 구조가 도출되었으며, 본조사(n=699)에서도 동일한 요인 구조가 재현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가 검증되었고, 내적 합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통해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준거타당도는 대인관계문제 척도 및 젠더감수성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성별 간 형태 동일성과 측정 동일성이 검증되었다. 예비 및 본조사 자료(n=1,029)를 통합해 기준을 산출하고, 이에 기반해 4단계 인식군을 설정하였다. 또한 성별과 학년에 따른 집단 비교 결과, 일부 요인에서 경계존중인식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최종 7개 요인은 '사생활 침해 및 민감정보 유출', '동의 없는 신체접촉 및 성적 사생활 침해', '집단 명분에 의한 소수자 배제', '다름 불인정 및 동조 압박', '위력을 사용한 강요', '젠더 편견적 말과 태도', '동의 없는 자의적 사용'으로 명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계존중'을 타인의 신체, 감정, 사생활, 소유물, 디지털 정보 등 개인적 영역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이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행동으로 개념화하였다. 본 척도는 대학생의 경계존중인식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론적·실천적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

주제어: 경계존중, 경계침범, 프라이버시, 대학생, 척도 개발, 표준화

I. 서 론

대학은 학문적 성취뿐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적 경험을 축적하는 교육·사회·문화적 장이다. 대학생들은 또래뿐 아니라 선·후배, 조교, 교수, 직원, 연구원 등과 폭넓은 관계를 경험하며, 자율성과 존중을 배우고 성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항상 평등하거나 안전한 것만은 아니다. 위계와 권력의 불균형 속에서 강압이나 소외, 차별이 발생하기도 하며, 친밀한 관계에서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상호 존중의 경계(boundary)를 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경계(boundary)는 단순히 물리적이거나 가시적인 선이 아니다. 경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이 보호받고자 하는 심리·사회적 영역을 구획하고 조절하는 장치로, ‘여기까지는 허용되지만 그 이상은 넘지 말아야 한다’는 개인의 내적 기준을 반영한다(오승현, 2023). 이러한 경계의 허용 범위는 개인의 가치관과 관계의 맥락,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한 대학생이 친한 동기에게는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줄 수 있지만, 낯선 조교에게는 보여주기를 꺼릴 수 있다. 이는 경계 설정이 관계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 외부에 개방할 것인지는 성격이나 가치관, 관계의 친밀도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경계 설정은 전적으로 그 당사자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하면 갈등이나 폭력,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연정, 문명현, 박지호와 김병주(2023)는 대학생 467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28.9%(135명)가 대학에서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8.6%(40명)는 직접적인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목격된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68.9%), 성추행·성폭력(32.6%), 신체폭력(17.0%), 강제 심부름(16.3%), 집단따돌림 및 사이버폭력(11.9%), 기타(지역감정, 갑질, 스토킹, 혐오 발언 등, 8.1%) 등이었다. 2022년 경북대학교 인권침해 피해 실태조사에서는 학부생 응답자 618명 중 최근 1년 동안 28.6%(177명)가 ‘차별’, 5.8%(36명)가 폭력(언어·신체·따돌림·명예훼손)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차별·폭력의 주요 가해자 비율은 동기, 선배, 교수 순이었다. 또한 ‘부당한 강요나 협박’ 피해 비율은 18.9%(117명)이었고, 그 구체적 유형은 학내 행사의 노래·춤 강요(6.5%, 주가해자: 선배), 사생활 간섭(5.0%, 동기), 음주 강요(4.7%, 선배), 사적 모임 강요(4.4%, 선배), 차림새 간섭(3.7%, 선배), 보상 없는 노동 강요(3.7%, 선배), 학업 관련 부당 대우(3.7%, 교수) 등으로 보고되었다. 이처럼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신체폭력이나 성폭력과 같은 명백한 범죄행위도 있으나, 차림새 간섭, 모임 참여 강요, 프라이버시 간섭처럼 일상적 관계 속에서 관례나 호의의 명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상호 간 경계(boundary)의 허용 범위에 대한 이해가

불일치하거나, 상대의 허용 기준을 확인·존중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기준대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 타인이 동의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경계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행동은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해할 위험을 높이며, 대학 내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프라이버시(privacy)는 ‘경계(boundary)’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사전적으로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이 남이나 사회에 알려지지 않고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 네이버 국어사전). 전통적으로 프라이버시는 개인이 자신 및 관련 정보를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공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 정의되었으나(Warren & Brandeis, 1890; Westin, 1967), 이후 연구들은 프라이버시를 단순히 ‘정보를 숨기거나 지키는 상태’로만 보지 않았다. Altman(1975)은 프라이버시를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에 대한 접근 허용 범위를 조절하는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으로 보았다. 즉, 상황이나 관계의 친밀도에 따라 타인의 접근을 허용하거나 제한하며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능동적 조절 과정이라는 것이다. Wisniewski, Islam, Richter Lipford and Wilson(2016)은 소셜 미디어 맥락에서 프라이버시를 ‘대인관계적 경계 조절(interpersonal boundary regulation)’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들은 개인이 온라인 공간에서도 관계의 맥락에 따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공개하거나 숨김으로써, 타인과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은 Wisniewski와 Page(2022)의 후속 연구에서도 이어져, 프라이버시를 정보 통제 문제의 문제를 넘어 관계 속에서 접근 허용성을 조율하는 사회적 메커니즘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Trepte와 Masur(2023)는 프라이버시 정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프라이버시는 ‘유동적(fluctuating)이고 관계적(relational)이며 의사소통적(communicative)’ 성격을 지닌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프라이버시가 개인에게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대인관계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접근 허용 범위를 선택하고 조절하는 능동적 행위자임을 시사한다. 특히 대인 간 경계 설정은 단순한 정보 통제를 넘어, 타인과의 심리적 거리와 관계의 성격을 조율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접근의 허용 범위를 조절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사적 영역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경계를 설정할 것인지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속하며, 이 권리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핵심 요소이다. 선행연구들 또한 프라이버시를 단순한 정보 통제 문제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타인의 접근 가능성과 허용 범위를 스스로 조율하는 능동적 과정으로 제시해 왔다. 즉,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일방적 행동은 결과적으로 타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경계는 개인적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계에 대한 인식이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계침범에 대한 판단은 사회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으며, 공동체 속에서 ‘이 정도는 지켜져야 한다’라며 암묵적으로 공유되는 보편적 기준이 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두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할 때, 개인의 인식과 사회의 공유된 가치나 규범이 차이를 보일 경우, 관계적 갈등이나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들이 자신이 지닌 경계 인식 수준을 성찰하고, 관계 속에서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은 건강한 관계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대학생들이 교수, 선후배, 연인관계 등 다양한 대인관계 맥락에서 어떤 상황을 경계침범으로 인식하는지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개인의 허용 인식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내 연구에서는 여전히 법·제도적 차원에서 개인정보 침해와 정보 보호 중심의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대인관계적 맥락에서의 프라이버시 이해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이호근과 이상훈(2009)은 국내 정보프라이버시 연구의 이러한 경향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가 주로 법률·행정적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한국의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다고 분석하였다.

국외에서는 대인관계, 전문직 윤리,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맥락에서 개인의 경계 인식과 경계 침범 관련 현상을 개념화하거나 이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Cupach와 Spitzberg(2000)는 강박적 관계적 침범(Obsessive Relational Intrusion, ORI)의 발생률과 심각성,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ORI 연구를 바탕으로, Gamache, Savard, Faucher and Cloutier(2022)는 관계집착 및 스토킹과 같이 타인의 복지를 위해하는 경계침범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인 SORI-Q(Stalking and Obsessive Relational Intrusions Questionnaire)를 개발하고 타당화하였다. 또한 Swiggart, Feurer, Samenow, Delmonico and Spickard(2008)은 의료 전문직을 대상으로 성적 경계 위반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Boundary Violation Index, BVI)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Dickeson, Roberts and Smout(2020)은 정신건강 전문가의 경계 위반 성향(boundary violation propensity)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뒤, 그 성향을 예측하는 심리적·상황적 요인을 규명하였다. Meng(2024)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프라이버시 경계 혼란(privacy boundary turbulence)을 심층 인터뷰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을 감시감, 배신감, 피해감, 무력감의 네 차원으로 정리하고 이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국외 연구들은 경계 침범이 단순한 정보 통제 문제를 넘어 개인의 정서적 경험과 심리적 피해 인식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척도들은 관계적 침범, 스토킹, 전문직 윤리, 사생활 보호 등 특정 맥락에 한정되어 있어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인관계 상황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

특히 대학생활의 다양한 관계 맥락에서 개인이 타인과의 경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대인 간 경계 설정은 관계의 질과 상호 존중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부모-청소년 관계 연구에서 경계 존중의 사회화 과정을 강조해 왔는데, Fosco, Grych, Harold and Cummings(2014)는 부모-청소년 간 관계에서 경계 침해가 높을수록 정서적 갈등이 심화되고 관계 안정성이 저하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Hoffman, Hanson and Brotherson(2021)은 ‘경계 설정 교육’을 통해 청소년과 부모의 경계 인식과 사회적 역량이 향상되고, 상호 관계의 갈등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계존중이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과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관계 역량임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계존중인식(boundary-respect awareness)’을 개인의 신체, 감정, 사생활, 소유물, 디지털 정보 등에 관한 허용 범위를 그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태도를 넘어, 당사자가 허용한 범위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를 존중하려는 관계적 감수성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교육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과거에 비해 개선되기는 했지만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서구에 비해 미흡한 편이며, 선후배, 교수-학생 사이에 일어나는 경계침범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감내하는 문화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갈등과 불신이 일어나고 인권침해를 겪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경북대학교 인권센터, 2022). 지연정 외(2023)는 질적분석을 통해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실효성 없는 폭력 예방 교육, 제도적 개입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목격자의 방관, 집단 동일시 문화, 교수·선배의 권위를 통한 강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학 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은폐·유지시키는 환경을 만든다고 지적하였다.

둘째, 최근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계 침범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익명성과 정보 확산의 용이성은 단체 채팅방 내 무분별한 정보 공유, SNS 상의 사생활 노출 강요, 익명 모욕글 게시 등 복합적인 침범 양상을 강화하며,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키고 관계망에 장기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Wang, Rice, Liu, Hagen & Zamanzadeh, 2025; 조수선, 2010).

셋째, 오늘날 경계존중 교육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영국은 모든 학교에서 ‘관계 및 성교육(Relationships and Sex Education)’을 의무화하여 존중 관계와 동의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Department for Education, 2025), 호주는

‘동의 및 존중 관계 교육(Consent and Respectful Relationships Education)’을 강화하여 이를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25). 또한 유네스코는 포괄적 성교육 지침을 통해 경계존중과 상호 동의를 핵심 요소로 권고한다(UNESCO, 2018). 우리나라에서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대상 교육 자료로 “오늘 몇 번의 동의를 구했나요?: 건강한 관계를 위한 경계존중 수업(오승현, 2023)” 등을 소개하고 있고, 2025년 폭력예방교육 강사 역량강화 연수 과정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으로 ‘온라인 경계존중’이 주요 주제로 포함되는 등(여성가족부, 2025.01.15.), 각종 성희롱·성폭력 예방 주요 교육자료에 경계존중을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넷째, 경계존중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에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여전히 성폭력 예방교육의 일부로 제한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교수로 재직한 이현혜는 “조직 내 성희롱은 상급자가 하급자의 사적 경계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하기 어려운 것은 조직문화와 깊이 관련된다”고 지적하며, 경계침범이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권력 구조와 조직 문화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텔키이루다, 2018.04.03).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나의 성, 나의 인권’ 자료는 경계침범의 양상을 물리적, 신체적, 언어·정서적, 시각적 차원 등으로 제시함으로써, 경계존중이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넘어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보여준다(중앙일보, 2018.03.31).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의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은 이러한 다차원적 경계존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 개념적 범위를 교육·연구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계존중은 다양한 관계와 맥락에서 중요한 사회적 함의를 갖지만, 대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경계가 존중되거나 침범되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실증 자료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경계존중’과 ‘경계침범’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거나 정량화한 시도가 드물어,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학습자마다 상이하게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교육 내용의 일관성과 실천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 환경에서 대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상황을 경계침범으로 인식하는지를 탐색하고 그 구조적 요인을 규명하며, 이를 토대로 대인 간 경계존중 인식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실태조사에서 대학생들이 언어폭력, 사생활 간섭, 강제적 요구 등 인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다수 경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대학생들이 어떤 행동들을 경계침범 행동으로 지각하는지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개발된 바가 없다.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각 대학은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 실태조사, 교육,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존 실태조사는 주로 피해 유형과 빈도에 초점을 맞춰왔다. 인권침해의 근간이 되는 대인관계 맥락에서의 경계존중 인식과 태도를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연구는 매우 드물며,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척도 개발 시도는 학문적으로도 선구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경계침범은 반드시 고의적 의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종종 경계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 무엇이 경계침범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척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예방적 개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대학 인권센터의 상담, 교육, 정책 수립 등 실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경계존중인식척도는 신입생 대상 인권교육, 대인관계 상담, 인권 침해 대응 및 예방 프로그램 등에서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인권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제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용 대인 간 경계존중인식척도는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는가?
2. 대학생용 대인 간 경계존중인식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개발 절차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척도를 개발하였다.

첫째, 문항 개발 단계에서의 질적 탐색은 연구자의 네트워크를 통한 다기관 편의표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4년 3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온라인 설문(네이버폼)을 통해 실시하였다. 서울 소재 2개 대학과 대구·경북 지역 3개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협조를 받아, 해당 대학의 학과 단체방 및 SNS에 연구 참여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설문에는 연구의 목적, 자발적 참여와 익명성 보장, 보상 및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명시하였다. 연락처 제공에 동의한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소정의 쿠폰을 제공한 후, 즉시 삭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학부 재학생으로, 대학 생활 중 ①교수, ②선배, ③후배, ④동기 ⑤아르바이트

내 관계 ⑥연인 ⑦기타 등 다양한 대인관계 맥락에서 자신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타인이 선을 넘었다고 느낀 경험, 즉 자신의 경계가 침해되었다고 인식한 구체적 상황을 각 문항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설문 응답은 총 126건이 되었고, 응답자들은 1~5개(대상별)의 다양한 상황을 응답하였다. 연구자들은 해당 응답들을 검토하며 중복되거나 모호한 진술을 제외하여 총 96개의 초기 문항(1차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

둘째, 문항의 내용타당도와 안면타당도를 검토하여 2차 예비문항을 선별하였다. 상담심리학 박사 3인, 법학 박사과정 연구자 1인, 대학 인권센터 실무자 1인으로 구성된 총 5인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였다. 전문가들은 모두 대학 인권센터에서의 실무 경험 또는 상담·교육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경계존중인식 개념에 내재된 상담심리적·법학적·인권적 관점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두 단계에 걸쳐 문항을 검토하였다. 1단계에서는 문항을 ‘의견’과 ‘행동’으로 구분한 후, 타인의 성격·생각·태도에 대한 평가나 응답자의 주관적 감정 표현(예: “예의가 없다”, “나를 무시했다”, “기분이 나빴다”, “생각이 이상하다”)에 머무르는 문항은 제외하였다. 대학생이 실제 대인관계 상황에서 관찰 가능한 구체적 행동이 드러난 문항을 중심으로 선별하였고, 일부 의견 중심 표현은 행동 중심 진술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사장님이 월급을 제때 주지 않는다”와 같이 노동관계·계약관계 등 제도적 쟁점에 해당하여 대학 내 대인관계 차원의 경계침범 개념과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문항은 제외하였다. 2단계에서는 (1) 한국 대학생의 일반적 경험 맥락에서 경계침범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2) 인권침해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지, (3) 문항 표현이 모호하거나 중복되지 않는지를 기준으로 재검토하였다. 이 과정은 전문가 5인의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여 문항을 채택·수정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초기 96개 문항 중 45개 문항이 삭제되어 총 51개의 2차 예비문항이 선정되었다.

설문의 지시문은 각 문항에 제시된 행동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응답은 4점 Likert 척도(1점 ‘전혀 허용될 수 없다’~4점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침범 행동을 더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곧 대인 간 경계존중인식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이후 문항의 이해 가능성과 표현의 명료성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소개받은 4년제 대학 재학생 7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인지적 사전검사(cognitive pretest)를 실시하였다(Willis, 2005). 이를 통해 문항의 현실 반영 여부와 이해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문항의 전반적 적절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선정된 51개의 2차 예비문항을 활용하여 대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기술통계치를

산출하고, 문항 간 상관계수 및 수정된 문항-총점 간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구인타당도의 초기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직각회전 Varimax)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6요인 구조가 도출되었으나, 그중 한 요인은 이론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는 두 요인('사생활 침해 및 민감정보 유출'과 '위력을 사용한 강요')이 혼재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통계적 기준과 요인 구조의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요인을 별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7요인 30문항(21문항 삭제)을 최종 예비문항으로 확정하였다.

넷째, 본조사는 예비조사에서 확정된 30개의 최종 예비문항을 바탕으로 4년제 대학 재학생 6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조사에서는 Direct Oblimin 회전을 적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예비조사에서 이론적으로 구분했던 7개 요인이 통계적으로도 명확히 재현되어, 요인구조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이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하였다.

다섯째, 신뢰도와 타당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 신뢰도는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통해 시간 경과에 따른 일관성을 평가하였다. 타당도는 준거타당도와 측정동일성 검증을 통해 확보하였다. 구체적으로, 준거타당도는 기존의 대인관계문제 척도 및 젠더감수성 척도와 상관을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으며,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G-CFA)을 실시하여 성별 집단(남성, 여성) 간에서 형태 동일성과 측정 동일성을 단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7요인 30문항으로 구성된 대학생 경계준중인식척도가 확정되었다.

여섯째, 척도의 실용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 설정 및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조사(n=330)와 본조사(n=699)의 자료를 통합한 총 1,029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T점수를 산출하고, 해당 분포를 바탕으로 경계준중인식 수준에 따른 4단계 인식군을 설정하였다. 또한 성별 및 학년에 따른 인식 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대학생용 경계준중인식척도의 개발을 위해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029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예비조사는 2024년 8월에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4년제 대학 재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조사 참여자의 성별은 남성 165명(50%), 여성 165명(50%)으로 균형 있게 분포하였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27명(8.2%), 2학년 78명(23.6%), 3학년 65명(19.7%), 4학년

160명(48.5%)으로, 4학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133명(40.3%)으로 가장 많았고, 자연과학계열 62명(18.8%), 공학계열 46명(13.9%) 순이었다. 거주 지역은 수도권 거주자가 190명(57.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서울 거주자가 62명(18.8%)이었다. 경제적 상태는 ‘중간’ 수준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180명(54.5%)으로 가장 많았고, ‘중하’ 85명(25.8%), ‘중상’ 50명(15.2%) 순이었다. 연애 경험은 ‘1년 이상 연애 경험이 있다’가 119명(36.1%)으로 가장 높았으며, ‘없다’ 102명(30.9%), ‘1년 미만 연애 경험이 있다’ 66명(20.0%), ‘겪만 탔다’ 43명(13.0%)로 나타났다.

본조사에서는 성별 및 학년 차이에 대한 탐색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성별(남·여)과 학년(1~4학년)을 기준으로 집단 간 균형을 고려한 표집을 설계하였다. 예비조사 자료와 통합했을 때 8집단(성별×학년)이 각각 최소 125명 이상이 되도록 대상을 설정하여 성별 및 학년별 비교의 통계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본조사는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으며,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총 699명의 자료를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성 364명(52.1%), 여성 335명(47.9%)이었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223명(31.9%), 2학년 172명(24.6%), 3학년 185명(26.5%), 4학년 119명(17.0%)으로 구성되었다. 전공은 인문사회계열 239명(34.2%), 공학계열 184명(26.3%), 자연과학계열 75명(10.7%) 순이었으며, 거주지역은 수도권 413명(59.1%), 영남권 148명(21.2%), 호남권 55명(7.9%) 등의 분포를 보였다. 경제적 상황은 ‘중’ 수준이 355명(5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상’ 177명(25.3%), ‘중하’ 124명(17.7%) 순으로 나타났다. 연애 경험은 ‘1년 이상 연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36명(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없다’ 193명(27.6%), ‘1년 미만 연애 경험이 있다’ 184명(26.3%), ‘겪만 탔다’ 96명(12.3%) 순이었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9.0과 AMOS 3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SPSS는 기술 통계,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EFA), t 검정 및 일원분산분석(ANOVA)에 활용하였으며, AMOS는 확인적 요인분석(CFA)과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G-CFA)에 사용하였다. 분석의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우선,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각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정규성 판단 기준은 왜도의 절댓값이 2.0 이하, 첨도의 절댓값이 7.0 이하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각 문항 간 상관계수 및 문항-총점 간 수정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문항 간 관련성과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였으며, .30~.80 범위를 적절한 상관 수준으로 간주하였다(Pett, Lackey

& Sullivan, 2003).

탐색적 요인분석은 예비조사(n=330)와 본조사(n=699)에서 각각 실시되었다. 예비조사에서는 직각 회전 방식인 Varimax를 적용한 결과 6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 하나의 요인은 이론적 해석에 따라 2개 하위 요인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총 7개 하위 요인을 설정하였다. 이후 요인 부하량, 중복 적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문항을 제거하고, 총 30문항을 예비 문항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이후 본조사에서는 요인수를 7로 지정하여, 요인 간 상관을 반영할 수 있는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회전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예비조사에서 설정된 동일한 7개 요인 구조가 통계적으로도 뚜렷하게 재현되어 요인 구조의 안정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분석에 앞서 수행된 KMO 표본 적절성 지수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 분석의 기초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며, 측정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χ^2/df , RMSEA, CFI, TLI, IFI 등의 적합도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χ^2/df 값은 2~3 이하, RMSEA는 .08 이하, CFI, TLI, IFI는 .90 이상일 경우 양호한 모형으로 간주된다(Byrne, 1994; Browne & Cudeck, 1992). 분석 결과 모든 적합도 지표가 기준치를 충족하였으며, 별도 문항 제거 없이 30문항이 최종 확정되었다.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은 성별 집단 간 척도의 구조적 동일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우선,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검정을 통해 두 집단 모두에 동일한 요인 구조가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하였으며, 이어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 검정에서는 요인적재치를 동일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집단 간 비교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 , df, χ^2/df , CFI, TLI, IFI, RMSEA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Cheung과 Rensvold(2002)이 제시한 $\Delta CFI \leq .01$ 기준을 충족하여 성별 집단 간 측정 동일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신뢰도 검증에서는 내적 합치도를 Cronbach's α 계수로 산출하여 각 하위 요인의 일관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일부 응답자(n=50)를 대상으로 5주 후 동일 문항에 대해 재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여 시간에 따른 안정성도 평가하였다.

준거타당도 검증은 본 척도와 기존의 대인관계문제 척도 및 젠더감수성 척도 간 상관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론적 기대와 일치하는 방향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척도의 실용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규준 설정 및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와 본조사 자료를 통합한 총 1,029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T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경계준중인식 수준에 따라 4단계 인식군을 설정하였다. 또한 성별 및 학년 간 인식 수준의 차이는 독립표본 t 검정 및 일원분산분석(AN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4.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용 대인 간 경계존중인식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대인관계문제 척도와 젠더감수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두 준거 척도의 원척도는 5점 Likert형으로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도구의 응답 체계를 통일하고 중립적 선택(‘보통’)을 방지하여 반응의 분화도를 높이기 위해 4점 Likert형으로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1) 대인관계문제척도

대인관계문제는 홍상황 외(2002)가 타당화한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단축형(KIIP-SC)을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8개의 하위 유형별 각 5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4점 Likert형 척도로 평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문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상황 외(2002)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지배·통제 .75, 자기중심성 .68, 냉담 .74, 사회적 억제 .80, 비주장성 .81, 과순응성 .72, 자기희생 .61, 과관여 .65였고, 본 연구에서는 지배·통제 .82, 자기중심성 .87, 냉담 .86, 사회적 억제 .91, 비주장성 .89, 과순응성 .84, 자기희생 .77, 과관여 .81로 나타났다.

2) 젠더감수성척도

젠더감수성은 한국성폭력상담소(2006)의 문항을 바탕으로 하경해(2018)가 구성하여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역할, 신체 노출, 스킨십, 성폭력, 성희롱 발언, 가해자 인식, 성매매, 미혼모 가정, 비만, 이성 친구의 폭력 및 차별 등 성별 규범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다룬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젠더감수성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4점 Likert형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하경해(2018)의 연구에서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Ⅲ. 연구결과

1. 예비 조사

예비조사에서는 수집된 330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자료의 요인분석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KMO 값은 .975로 양호하였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chi^2=16,221.089$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요인분석에 적절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양병화, 1998).

요인 수는 고유값(eigen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6개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들의 누적 설명력은 62.712%로 일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준인 50~6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5). 그러나 이 중 한 요인에는 내용적으로 이질적인 개념의 문항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이론적 분별 가능성, 내용 타당성, 해석의 명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요인을 두 개의 하위 요인으로 세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7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요인 구조는 이후 본조사($n=699$)에서 요인수를 7로 지정하여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회전 방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비조사에서 설정된 7개 요인 구조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예비조사의 1요인 분리(1F, 5F)에 대한 구조적, 해석상 정당성이 지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항 선별 과정에서는 요인 부하량이 .40 미만이거나 복수 요인에 중복 적재된 문항 21개를 제외하였고, 최종적으로 30개 문항을 예비문항으로 확정하였다. 문항-총점 간 수정 상관계수(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는 대부분 .35 이상으로 나타나 문항 간 일관성이 확보되었으며(Pett et al., 2003), 각 요인의 Cronbach's α 계수는 .78에서 .92 사이로 내적 합치도 또한 양호한 수준이었다.

확정된 각 요인에 대해서는 문항의 의미를 바탕으로 요인명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 표 1에 제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도출된 7개의 하위 요인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의 일상적 대인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경계침범 양상을 반영한다.

표 1
요인명과 조작적 정의

요인명	조작적 정의
1F. 사생활 침해 및 민감정보 유출	타인의 동의 없이 사적 정보나 민감한 비밀에 접근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누설·노출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
2F. 동의 없는 신체접촉 및 성적 사생활 침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에 접촉하거나 성적 사생활을 발언·질문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
3F. 집단 명분에 의한 소수자 배제	집단의 규칙이나 다수의 결정, 낙인 등 그럴듯한 명분을 근거로 개인(소수자)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
4F. 다름 불인정 및 동조 압박	자신과 다른 의견, 선택,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타인에게 동조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
5F. 위력을 사용한 강요	위계나 힘을 이용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 행동을 강요하거나 복종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
6F. 젠더 편견적 말과 태도	성별 고정관념, 외모 평가, 성적 대상화, 성적 지향·정체성에 대한 편견적 언행에 대한 인식 수준
7F. 동의 없는 자의적 사용	친밀성을 근거로 타인의 소유물, 공간, 디지털 자료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

1F ‘사생활 침해 및 민감정보 유출’은 타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무단 접근이나 민감 정보의 누설 등 정보 프라이버시 감수성과 관련된 경향을 포함한다. 2F ‘동의 없는 신체접촉 및 성적 사생활 침해’는 친밀감 또는 농담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신체적·성적 경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F ‘집단 명분에 의한 소수자 배제’와 4F ‘다름 불인정 및 동조 압박’은 대학 내 위계적 구조와 동질성 중심의 집단 문화가 초래하는 소수자 배제와 집단 내 강제적 동조 압박을 반영한다. 또한, 5F ‘위력을 사용한 강요’는 권위나 물리적 우위를 이용해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행동을, 6F ‘젠더 편견적 말과 태도’는 성역할 고정관념 및 외모 중심 사고에서 비롯된 평가나 발언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7F ‘동의 없는 자의적 사용’은 타인의 물건, 공간, 이미지 등을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하는 자의적 행동을 지칭한다. 이들 요인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경계존중인식의 다차원적 특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2. 본조사

1) 문항의 기술통계

최종 확정된 30개 문항의 기술통계치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최종 선정된 30문항에 대한 기술통계

(N=699)

순번	문항번호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	첨도
1	Q1	1.81	.874	.634	.769
2	Q2	1.63	.762	1.018	.354
3	Q3	1.78	.790	.733	.119
4	Q4	1.75	.775	.672	.402
5	Q6	1.62	.776	1.012	.169
6	Q9	1.43	.749	1.614	1.589
7	Q10	1.42	.719	1.610	1.729
8	Q11	1.49	.717	1.343	1.126
9	Q13	1.55	.765	1.189	.515
10	Q14	1.52	.736	1.224	.627
11	Q15	1.71	.808	.853	.145
12	Q17	1.66	.756	.835	.168
13	Q19	2.51	1.005	.234	1.067
14	Q20	2.28	.876	.029	.906
15	Q25	2.25	.974	.134	1.071
16	Q26	1.97	.844	.395	.754
17	Q34	1.73	.825	.851	.159
18	Q35	1.64	.783	.988	.129
19	Q36	1.62	.805	1.208	.816
20	Q37	2.09	.920	.156	1.200
21	Q38	2.08	.889	.169	1.090
22	Q39	1.98	.897	.380	.956
23	Q41	2.15	.835	.067	.912
24	Q42	2.22	.824	.004	.829
25	Q43	2.01	.776	.212	.768
26	Q46	2.02	.836	.376	.614
27	Q47	1.66	.727	.895	.365
28	Q49	1.78	.795	.710	.231
29	Q50	1.92	.829	.499	.549
30	Q51	1.66	.772	.883	.102

각 문항의 평균은 1.42에서 2.51까지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문항이 2점 미만으로 평균 응답이 비교적 낮은 점수 경향을 보여, 전반적으로 경계존중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편차는 0.717~1.005로, 전체적으로 적절한 응답의 분산을 보였다. 왜도는 0.004~

1.614 범위였으며, 첨도는 0.102~1.729 범위로, 모든 문항에서 왜도는 ± 2 , 첨도는 ± 7 기준을 만족하여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척도 문항들은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모형 분석에 적절한 응답 특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최종 30문항 탐색적 요인분석(EFA) 결과

(N=699)

요인	문항내용	요인						
		1	2	3	4	5	6	7
1F	Q13. 문자·통화 내역 등 ...	0.826	0.372	0.303	0.376	0.556	0.606	0.535
	Q14. 학군, 가정환경 등 ...	0.805	0.352	0.261	0.345	0.561	0.540	0.473
	Q10. 학과 친구의 성 경험을 ...	0.797	0.254	0.111	0.248	0.694	0.582	0.456
	Q11. 교수님이 동기의 민감한 비밀을.	0.788	0.313	0.230	0.334	0.609	0.555	0.490
	Q09. 몰래 휴대전화 갤러리를 ...	0.781	0.208	0.099	0.196	0.744	0.580	0.410
	Q17. 타인의 약점이나 비밀을 ...	0.707	0.350	0.349	0.444	0.498	0.565	0.481
	Q15. 자신에게만 털어놓은 비밀을	0.705	0.399	0.359	0.454	0.471	0.508	0.498
2F	Q37. 이성 동기와 농담을 하면서...	0.309	0.878	0.448	0.527	0.250	0.403	0.459
	Q38. 칭찬과 격려의 표현으로...	0.322	0.833	0.432	0.532	0.241	0.414	0.432
	Q39. 자신의 성 경험을 ...	0.346	0.675	0.398	0.487	0.196	0.486	0.416
3F	Q19. 조별 활동 중에 ...	0.147	0.430	0.802	0.464	0.010	0.139	0.153
	Q20. 팀플 모임시간을 정할 때 ...	0.301	0.415	0.686	0.479	0.212	0.294	0.327
	Q25. 동기가 사이비 종교 신도인 것을	0.300	0.397	0.627	0.490	0.137	0.341	0.241
	Q26. 간염 보균자 후배가 동아리에.	0.439	0.433	0.585	0.479	0.290	0.483	0.351
4F	Q42. 싫어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	0.298	0.519	0.475	0.791	0.199	0.329	0.392
	Q43.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와 ...	0.329	0.469	0.446	0.764	0.218	0.335	0.432
	Q41. 같은 과목을 수강 신청하자고.	0.245	0.488	0.458	0.655	0.198	0.323	0.431
	Q46. 학생회장 투표에서 ...	0.375	0.437	0.481	0.636	0.237	0.355	0.413
5F	Q3. 선배는 동아리 회식에서 ...	0.544	0.340	0.218	0.337	0.763	0.495	0.413
	Q6. 후배가 자신의 도움 요청을 ...	0.605	0.269	0.137	0.264	0.752	0.478	0.445
	Q4. 선배는 후배를 위해서라며 ...	0.555	0.290	0.208	0.276	0.724	0.425	0.410
	Q2. 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	0.532	0.170	0.081	0.224	0.680	0.397	0.364
	Q1. 후배들의 잘못된 행동을 ...	0.458	0.125	0.016	0.097	0.634	0.365	0.366
6F	Q35. 이성친구에게 ... 칭찬했다.	0.596	0.478	0.252	0.391	0.474	0.811	0.540
	Q36. 친구가 듣기 싫어해도 ...	0.583	0.438	0.298	0.382	0.528	0.794	0.525
	Q34. 여성스러운 말투나 몸짓을 ...	0.568	0.462	0.303	0.446	0.456	0.721	0.499
7F	Q49. 친한 사이라서 허락을 ...	0.476	0.403	0.213	0.439	0.436	0.432	0.727
	Q51. 자주 드나들던 친구 자취방에	0.490	0.389	0.211	0.371	0.453	0.521	0.724
	Q50. 친한 친구에게는 동의받을 필요가	0.392	0.458	0.294	0.465	0.285	0.411	0.699
	Q47. 친한 친구가 이해해줄 것 같아서	0.632	0.372	0.153	0.467	0.489	0.584	0.653
	고유치	11.609	2.817	.901	.688	.659	.428	.393
	공통분산(%)	38.697	9.391	3.002	2.295	2.197	1.428	1.311
	누적분산(%)	38.697	48.088	51.090	53.385	55.582	57.009	58.321

2) 탐색적 요인분석

본조사에서는 수집된 699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표본의 적절성과 요인분석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KMO 값은 .961로 양호하였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도 $\chi^2=11,904.082(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이 확인되었다(양병화, 1998).

본조사의 요인분석은 요인 간 상관 가능성과 표본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우도 추출법(Maximum Likelihood)과 사각 회전 방식인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방식을 적용하였다. 요인 수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7개로 사전 지정하였으며, 요인 부하량은 요인 간 상관을 고려하여 구조행렬(Structure Matrix)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도출된 7개 요인의 누적 설명력은 58.321%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누적 설명력 기준인 50~60%를 충족하였다(Hair et al., 1995). 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3) 확인적 요인분석

본 척도의 요인 구조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형 적합도 지수를 나타냈다($\chi^2=1056.88$, $df=384$, $\chi^2/df=2.752$, NFI=.913, RFI=.901, IFI=.943, TLI=.935, CFI=.942, RMSEA=.050). 모형의 구성은 그림 1에, 주요 적합도 지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CFA)

(N=699)

모형 유형	χ^2	df	χ^2/df	NFI	IFI	TLI	CFI	RMSEA
측정모형(전체)	1056.88	384	2.752	.913	.943	.935	.942	.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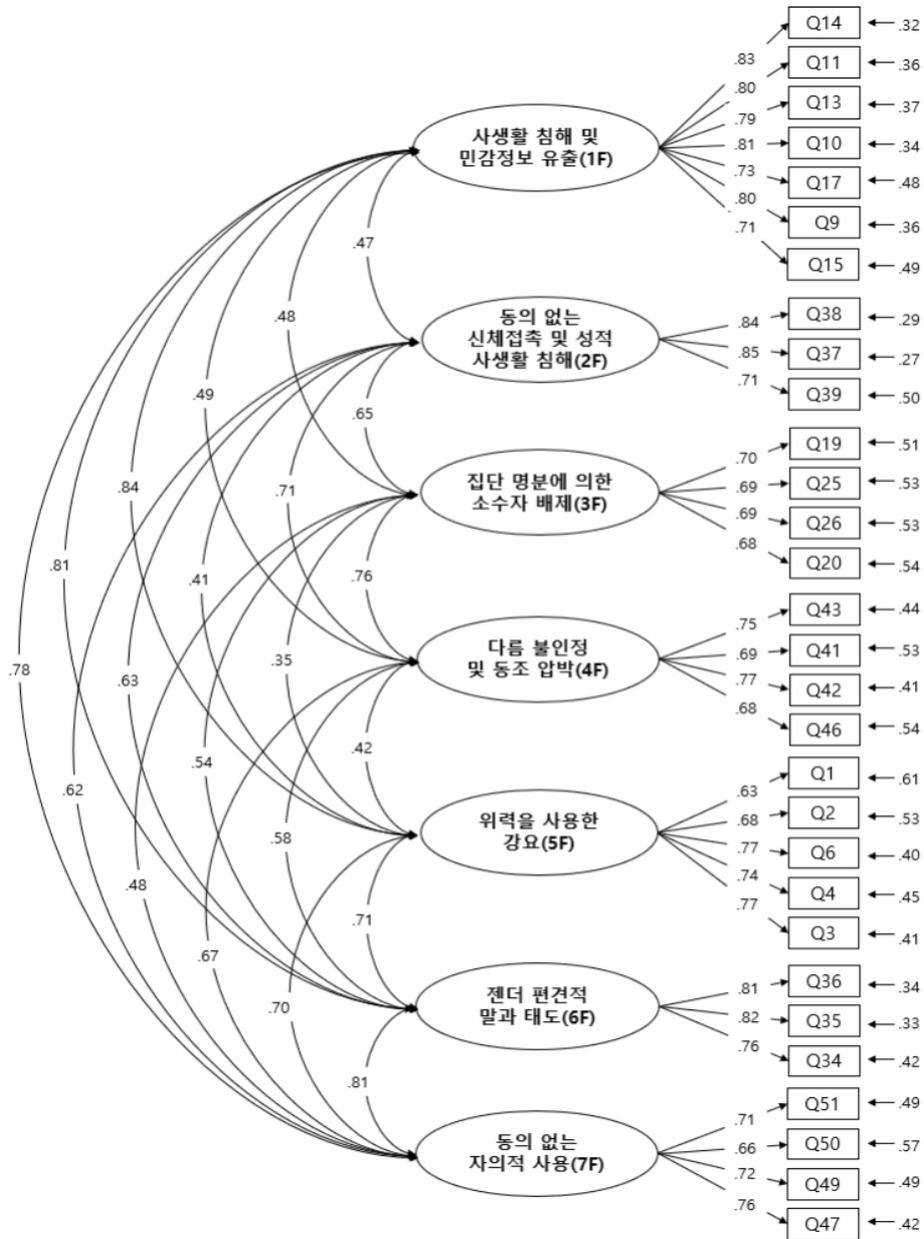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 형태 및 측정 동일성 검정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척도가 남녀 집단 간에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G-CFA)을 실시하였다. 먼저, 형태 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의 경우,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에 동일한 측정모형을 설정하고 요인적재치, 절편, 오차항 등을 자유롭게 추정한 형태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chi^2=1552.672$, $df=768$, $\chi^2/df=2.022$,

IFI=.933, TLI=.923, CFI=.932, RMSEA=.037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기준 (χ^2/df 의 기준치 2~3 이하, CFI, TLI \geq .90; RMSEA \leq .08)을 충족하는 수준으로(Byrne, 1994; Browne & Cudeck, 1992), 두 집단이 동일한 요인 구조를 기반으로 응답했음을 시사한다.

이어, 측정 동일성(metric invariance)을 검토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 집단 간의 요인적재치 값을 동일하게 고정한 제약 모형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측정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590.709$, $df=791$, $\chi^2/df=2.011$, IFI=.932, TLI=.924, CFI=.931, RMSEA=.037로 나타났으며, 형태 동일성 모형과 비교한 적합도 변화는 $\Delta CFI=.001$ 로, Cheung과 Rensvold (2002)가 제시한 기준($\Delta CFI \leq .01$)을 충족하였다. 이는 요인적재치가 성별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며, 해당 척도가 남성과 여성 집단 모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 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척도는 성별 간 형태 및 측정 동일성을 모두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성별 간 구조적 차이 또는 평균 차이에 대한 비교가 타당하게 수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 적합도 지수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성별 동일성 검정에 따른 모형 적합도 지수

(N=699)

모형 유형	χ^2	df	χ^2/df	IFI	TLI	CFI	RMSEA	ΔCFI
형태 동일성	1552.67	768	2.022	.933	.923	.932	.037	-
측정 동일성	1590.71	791	2.011	.932	.924	.931	.037	.001

5) 수렴타당도

모형의 통계치를 바탕으로 수렴타당도를 검토한 결과, 모든 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617에서 .854 범위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고($p < .001$), 기준치인 .50을 모두 상회하였다(Hair et al., 2010). 평균분산추출지수(AVE)는 .472~.645, 개념신뢰도(CR)는 .781~.917로 산출되어, 대부분의 요인이 수렴타당도의 기준(AVE \geq .50, CR \geq .70)을 충족하였다(Fornell & Larcker, 1981). 이 중 4F 요인의 AVE는 0.472로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했으나, CR 값이 0.60 이상일 경우 수렴타당도로 수용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또한 요인부하량이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본 연구의 척도는 수렴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문항별 경로계수 및 수렴타당도(CFA) (N=699)

요인		문항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계수	S.E	C.R	AVE	CR
1F	→	Q14	0.825	1	-	-	.612	.917
		Q11	0.799	0.943	0.038	24.804 ^{***}		
		Q13	0.793	0.999	0.041	24.512 ^{***}		
		Q10	0.812	0.961	0.038	25.419 ^{***}		
		Q17	0.725	0.902	0.042	21.622 ^{***}		
		Q9	0.800	0.987	0.04	24.853 ^{***}		
		Q15	0.714	0.950	0.045	21.180 ^{***}		
2F	→	Q38	0.843	1	-	-	.645	.844
		Q37	0.852	1.047	0.042	24.722 ^{***}		
		Q39	0.706	0.846	0.042	19.924 ^{***}		
3F	→	Q19	0.697	1	-	-	.520	.843
		Q25	0.686	0.954	0.062	15.488 ^{***}		
		Q26	0.689	0.830	0.053	15.539 ^{***}		
		Q20	0.676	0.845	0.055	15.300 ^{***}		
4F	→	Q43	0.746	1	-	-	.472	.781
		Q41	0.687	0.992	0.058	17.091 ^{***}		
		Q42	0.767	1.093	0.057	19.041 ^{***}		
		Q46	0.681	0.984	0.058	16.953 ^{***}		
5F	→	Q1	0.626	1	-	-	.520	.812
		Q2	0.683	0.952	0.064	14.919 ^{***}		
		Q6	0.774	1.099	0.067	16.351 ^{***}		
		Q4	0.741	1.050	0.066	15.848 ^{***}		
		Q3	0.770	1.113	0.068	16.301 ^{***}		
6F	→	Q36	0.810	1	-	-	.633	.838
		Q35	0.816	0.980	0.042	23.382 ^{***}		
		Q34	0.760	0.961	0.045	21.418 ^{***}		
7F	→	Q51	0.714	1	-	-	.510	.806
		Q50	0.660	0.992	0.062	16.081 ^{***}		
		Q49	0.715	1.031	0.059	17.367 ^{***}		
		Q47	0.764	1.009	0.055	18.475 ^{***}		

*** $p < .001$

4. 척도의 검증

1) 신뢰도 검증

대학생용 경계존중인식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Cronbach's α)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내적 합치도 분석 결과,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계수는 .95로 매우

높았으며, 7개 하위요인의 계수는 .78에서 .92 범위로 모두 .70 이상의 양호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본조사 시행 5주 후, 본조사에 참여하고 재응답에 동의한 5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으로 재측정하여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두 시점 간의 상관계수는 $r=.74(p<.001)$ 로, 본 척도가 시간 경과에 따른 측정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신뢰도 분석 (N=699)

요인	1F	2F	3F	4F	5F	6F	7F	전체	검사-재검사 ^{a)}
문항수	7	3	4	4	5	3	4	30	30
Cronbach's α	.92	.84	.78	.81	.84	.84	.81	.95	.74

a) 5주 후 재검사 실시(50명)

2) 준거 타당도 검증

대학생용 경계준중인식척도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대인관계문제 척도(KIIP-SC)의 8개 하위 요인과 젠더감수성 척도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척도의 7개 하위 요인은 모두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 과순응, 자기희생, 과관여 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p<.001$). 특히 1F(사생활 침해 및 민감정보 유출)는 통제·지배($r=.56$), 과관여($r=.47$), 자기중심성($r=.47$)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5F(위력을 사용한 강요), 6F(젠더 편견적 말과 태도), 7F(동의 없는 자의적 사용) 요인도 모두 통제·지배와 $r=.50$ 이상의 상관을 보였다. 4F(다름 불인정 및 동조 압박)은 자기희생($r=.50$), 과순응($r=.45$)과 강한 상관을 나타냈다(표 8 참조).

표 8

준거타당도 검증을 위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699)

요인	대인관계 문제								젠더 감수성
	통제 지배	자기 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	과순응	자기 희생	과관여	
1F	.56***	.47***	.32***	.26***	.32***	.42***	.39***	.47***	.39***
2F	.37***	.35***	.34***	.32***	.35***	.44***	.44***	.39***	.29***
3F	.31***	.36***	.37***	.36***	.34***	.37***	.42***	.33***	.21***
4F	.41***	.36***	.41***	.40***	.37***	.45***	.50***	.44***	.21***
5F	.51***	.39***	.26***	.23***	.29***	.37***	.28***	.43***	.39***
6F	.50***	.43***	.31***	.26***	.33***	.42***	.35***	.41***	.49***
7F	.51***	.41***	.33***	.28***	.33***	.42***	.38***	.41***	.32***

*** $p<.001$

또한, 모든 요인은 젠더감수성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p < .001$), 이 중 6F가 가장 높은 상관($r = .49$)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척도가 이론적으로 연관된 외적 준거와 적절한 관련성을 가지며, 준거타당도가 확보되었음을 시사한다.

5. 척도 점수의 기준 설정 및 집단 간 차이 분석

대학생용 대인 간 경계존중인식척도의 실용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절에서는 점수의 기준 설정과 함께 성별 및 학년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기준 점수 산출에는 예비조사 330명과 본조사 699명의 자료를 통합한 총 1,029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두 조사는 동일한 문항 체계를 기반으로 실시되었으며, 본 조사는 예비조사 문항 중 일부를 제거하여 최종 문항으로 응답을 수집하였다. 두 조사는 안내 절차, 응답 방식 등의 시행매락과 응답 조건의 동질성을 사전에 확보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두 자료를 단일 표본으로 통합해 규준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자료를 통합하여 규준을 도출한 선행 척도 개발·표준화 연구(김아영, 2002)와 일치한다.

전체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529명(51.4%), 여성 500명(48.6%)으로 비교적 균형 있게 분포하였으며, 학년은 1학년 250명(24.3%), 2학년 250명(24.3%), 3학년 250명(24.3%), 4학년 279명(27.1%)으로 전 학년이 고르게 포함되었다.

경계존중인식 점수는 평균 50, 표준편차 10을 기준으로 T점수로 변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준 분포를 산출하였다. 성별 및 학년 간 평균 차이는 각각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 분석(ANOVA)을 통해 검토하였다.

1) 경계존중인식 수준 분포 및 응답 특성(T점수 기준)

경계존중인식 수준을 체계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의 T점수 분포를 기준으로 인식 수준을 구분하였다. T점수를 활용하여 점수 분포를 3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규준을 설정한 선행연구들(김민규, 박수정, 윤채빈, 2016; 김성현, 김성희, 2007)을 근거로 하였으며, 이러한 정규분포 기반의 준거 설정은 척도 점수를 집단 간 비교 가능하도록 표준화하는 통계적 해석틀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규준 설정 방식을 준용하되, 경계존중인식의 연속적 분포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위해 '매우 낮음-낮음-보통-높음'의 4단계 구분 체계를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T점수 60점 이상은 '매우 낮은 인식군', 55-59점은 '낮은 인식군', 45-54점은 '일반군', 44점 이하는 '높은 인식군'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절대적 기준이라기보다 상대적 수준을 해석하기 위한 준거적 범주로 활용할 수 있다.

표 9
경계존중인식 수준 분포 및 응답 특성(T점수 기준) (N=1,029)

경계존중인식 수준별 구분	T점수 기준	인원수	비율(%)	평균 원점수	평균 T점수
매우 낮은군	≥ 60	149	14.48	2.71	68.04
낮은군	55~59	102	9.91	2.14	56.64
일반군	45~54	362	35.18	1.78	49.54
높은군	≤ 44	416	40.43	1.41	42.31

※ 각 요인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존중인식 수준이 낮음을 의미함.

표 9에는 각 인식군의 평균 T점수와 함께 원점수(4점 척도 기준)를 제시하였다. 원점수는 전체 문항의 응답 평균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존중인식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전체 표본에서 ‘매우 낮은 인식군’은 149명(14.48%), ‘낮은 인식군’은 102명(9.91%)으로 약 24.4%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반면 ‘일반군’은 362명(35.18%), ‘높은 인식군’은 416명(40.43%)으로, 과반 이상의 응답자가 평균 이상의 인식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학년·하위요인별 세부적 분석 대신 전체 표본 기준 총점 결과만을 보고하였다(표 9 참조).

2)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여성 집단이 남성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경계존중인식 수준을 보였다($t=6.096, p<.001$).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침범 허용 인식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이 경계존중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경계침범 행동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표 10 참조).

하위요인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1F($t=5.368, p<.001$), 2F($t=3.795, p<.001$), 4F($t=2.610, p<.01$), 5F($t=4.733, p<.001$), 6F($t=10.148, p<.001$), 7F($t=6.580, p<.001$)에서 모두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각 요인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여, 경계존중인식 수준이 보다 높음을 보여준다. 반면, 3F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0.849, p>.05$).

표 10
성별 집단의 평균 차이 (N=1,029)

	요인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남성	529	1.89	0.54	6.096***
		여성	500	1.70	0.44	
1F	사생활 침해 및 민감정보 유출	남성	529	1.63	0.65	5.368***
		여성	500	1.43	0.52	
2F	동의 없는 신체접촉 및 성적 사생활 침해	남성	529	2.11	0.77	3.795***
		여성	500	1.93	0.78	
3F	집단 명분에 의한 소수자 배제	남성	529	2.25	0.73	0.849
		여성	500	2.22	0.71	
4F	다름 불인정 및 동조 압박	남성	529	2.08	0.67	2.610**
		여성	500	1.98	0.65	
5F	위력을 사용한 강요	남성	529	1.74	0.65	4.733***
		여성	500	1.56	0.57	
6F	젠더 편견적 말과 태도	남성	529	1.83	0.71	10.148***
		여성	500	1.42	0.58	
7F	동의 없는 자의적 사용	남성	529	1.87	0.65	6.580***
		여성	500	1.62	0.56	

*** $p < .001$, ** $p < .01$

3) 학년 간 평균 차이

학년 간 경계존중인식 수준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척도 전체 평균 점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2.065$, $p > .05$). 그러나 하위요인 중 2F($F=2.757$, $p < .05$), 4F($F=3.028$, $p < .05$), 5F($F=2.647$, $p < .05$)에서는 학년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등분산성 검정 결과, 세 요인 모두 등분산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Games-Howell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세 요인 모두에서 1학년이 4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1학년이 4학년에 비해 경계침범 상황을 더 허용적으로 인식하고, 경계존중인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시사한다. 표 11에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하위요인만을 제시하였다.

표 11

학년별 집단의 평균 차이

(N=1,029)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F	η^2	사후검정
전체	1학년	250	1.86	0.47	2.065	0.006	-
	2학년	250	1.79	0.45			
	3학년	250	1.79	0.52			
	4학년	279	1.76	0.56			
2F	1학년	250	2.13	0.78	2.757*	0.008	1학년 > 4학년
	2학년	250	2.02	0.75			
	3학년	250	2.0	0.8			
	4학년	279	1.94	0.78			
4F	1학년	250	2.12	0.62	3.028*	0.009	1학년 > 4학년
	2학년	250	2.04	0.61			
	3학년	250	2.01	0.7			
	4학년	279	1.95	107			
5F	1학년	250	1.74	0.59	2.647*	0.008	1학년 > 4학년
	2학년	250	1.64	0.57			
	3학년	250	1.66	0.66			
	4학년	279	1.59	0.63			

* $p < .05$

IV.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대학생용 대인 간 경계존중인식척도를 개발·검증하고, 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생들에게 동기·친구, 교수, 선·후배, 직원, 모르는 사람 등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타인이 ‘선을 넘었다’고 인식한 경험을 온라인 설문을 통해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응답을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고 전문가 검토 및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 등 척도개발 절차를 통해 7개 요인, 30문항을 확정하였으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준거타당도 검증에서 대인관계문제 척도 및 젠더감수성 척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성별 간 형태 동일성과 측정 동일성도 확인되었다. 또한 예비·본조사 총 1,029명의 자료를 통합하여 T점수 기준과 4단계 인식군을 제시함으로써 실무적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본 연구 결과와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척도는 대학 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면서도 인권침해적 소지가 내포된 다양한 경계침범 행동을 포괄하며, 이를 바탕으로

로 경계존중인식 수준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였다. 본 척도는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은 '1F 사생활 침해 및 민감정보 유출', '2F 동의 없는 신체접촉 및 성적 사생활 침해', '3F 집단 명분에 의한 소수자 배제', '4F 다름 불인정 및 동조 압박', '5F 위력을 사용한 강요', '6F 젠더 편견적 말과 태도', '7F 동의 없는 자의적 사용'으로 명명되었다.

7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경계침범(boundary violation)'은 타인의 신체, 감정, 사생활, 소지물, 디지털 정보 등 개인적 영역에 대해 동의 없이 접근하거나 사용하고, 관계나 지위를 이용해 이를 침해하는 행위나 태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비동의 신체접촉, 개인정보 무단 공유, 강압적 농담, 동조 압력, 사생활 간섭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이 약화되고, 더 나아가 인권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경계존중(boundary respect)'은 타인의 신체, 감정, 사생활, 소유물, 디지털 정보 등 개인적 영역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이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계존중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두어 '경계존중인식척도'를 개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7개 하위 요인 가운데 1요인인 '사생활 침해 및 민감정보 유출'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전체 설명된 분산(58.3%)의 약 66%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사생활 및 민감정보 유출을 매우 심각한 경계침범 행위로 인식하며, 사생활 보호와 민감정보 보호를 대인 간 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중요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생활 침해와 민감정보 유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이 주요 사례로 다루어져 왔다. 위초통과 권순동(2017)은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한 정보 노출을 넘어 당사자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유발하며, 기업 맥락에서는 서비스 이용 중단이나 부정적 구전 의도로, 대인관계에서는 관계나 활동 회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불쾌감·무력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고, 회피·이탈 혹은 항의·저항 등의 행동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상민, 2015). 이는 대학생이 사생활 침해와 민감정보 유출을 심각한 경계침범의 상황으로 인식한 본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일상적 대인관계에서도 타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불필요한 개입을 자제하는 태도는 관계적 신뢰 형성의 토대가 되는 윤리적 원칙이며(Pope & Vasquez, 2016), 이러한 경계존중 태도는 '사려 깊은 무관심(respectful indifference)'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개인의 사적 영역과 정보 경계를 존중하고 필요 이상의 개입을 삼가는 사생활 보호는 다양한 대인관계 맥락에서 지켜져야 할 상호작용 규범이며, 경계존중 교육에서 중요한 실천 원리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존의 대학 내 인권침해 논의가 주로 권력관계에 기반한 구조적 폭력에 집중해 왔다면,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일상적 상호작용 맥락에서도 '사생활 침해 및 민감정보 유출'이 핵심적인 경계침범

요소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셋째, 2요인인 ‘동의 없는 신체접촉 및 성적 사생활 침해’는 전체 설명된 분산 중 약 16.1%를 차지하였다. 해당 요인은 타인의 신체를 ‘격려’나 ‘친밀감의 표현’ 등의 명분으로 접촉하거나, 성적 사생활에 대해 질문하는 상황 등을 포괄한다. 특히 본 척도의 2요인이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는 점은, 이 요인이 갖는 심리적·사회적 민감성과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침범의 심각성을 반영한다. 이 요인은 한승희, 김영자, 정소희와 정지량(2025)이 개발한 대학생용 성인지각수성척도에서 제시한 ‘성적 프라이버시 침범’ 요인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며, “친하니까 괜찮다”는 식의 인식은 타인의 동의를 무시하는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성희롱·성폭력의 문제로 이어질 위험도 높다. 성적 프라이버시는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명시적 동의, 더 나아가 *Yes Means Yes* 원칙에 따른 적극적 동의에 기반해야 한다(Javidi et al., 2020). 설령 호의적인 의도의 행동이라 하더라도, 신체접촉이나 성적 행동에 앞서 상대방의 입장과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소통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성적 경계존중은 단순히 성희롱 예방을 위한 소극적 규범을 넘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인권적 토대라 할 수 있다. 이를 제도적·문화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성적 경계존중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교육적 개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3~7요인은 각각 전체 설명된 분산 중 2.2~5.1% 수준의 기여도를 보였다. 개별 설명력은 1·2요인에 비해 낮지만, 대학생의 일상적 관계와 집단 맥락에서 작동하는 구조적 경계침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 요인은 집단 명분에 의한 소수자 배제, 타인에게 나와 동일한 선택을 하도록 압박, 위력을 사용한 강요, 젠더 편견적 말과 태도, 타인의 시간·자원 무단 사용 등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경계침범을 포괄한다. 이러한 침범은 대체로 권력 불균형, 사회 규범, 집단 분위기 등 구조적·맥락적 요인과 맞물려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관계의 비대칭성이 클수록 그 심리적·사회적 파급력은 심화된다. 선배-후배, 교수-학생, 다수-소수 집단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우월적 지위자의 경계침범은 단순한 부주의나 무례의 차원을 넘어, 힘에 의한 억압과 통제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계침범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위계적 관계 속에서 침묵과 복종을 학습시키며 폭력적 요소가 구조화된 대학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서 우월적 지위는 공식적 위계 관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래 간일지라도 집단 압력이나 다수결의 논리가 작용할 때 그 안에는 ‘미시적인 권력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기 모임에서 다수의 의견을 앞세워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도록 부추기거나, ‘우리’라는 집단 결속력을 명분으로 소수의 의견을 ‘유난스러운 것’으로 치부하여 배제하는 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또래 간의 압력도 피해자로 하여금 관계적 고립을 피하기 위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위력에 의한 강요 못지않게 개인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경북대학교 인권센터(2022)의 실태조사에서 학부생들은 ‘차별’과 ‘폭력(언어·신체·따돌림·명예훼손)’의 주된 행위자를 학과 동기로 응답한 바 있다. 따라서 경계존중은 위계적 권력관계뿐 아니라 또래 관계 안에서도 지켜져야 할 기본 규범이자 가치로 교육하고 지도해야 한다. 즉, 구성원 모두가 상호존중의 가치를 공유하며 경계존중을 일상적 관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준거타당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척도는 대인관계문제 척도(KIIP-SC)의 8개 하위 요인 및 젠더감수성 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p < .001$). 대인관계문제 척도는 지배·통제, 자기희생, 과순응 등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적응적 행동 양상을 평가하며, 이러한 특성은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거나 자신의 경계를 약화시키는 행동 양식과 개념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Dickeson et al.(2020)은 경계 위반 성향(boundary violation propensity)이 남성의 경우 지배·통제적 관계 스타일, 여성의 경우 자기희생·과순응적 관계 스타일과 유의하게 관련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는 경계침범과 대인관계 문제의 연관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적 상관은 본 척도가 경계 민감성 및 관계 역동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개념들을 타당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통제지배’ 성향은 ‘사생활 침해 및 민감정보 유출’, ‘위력을 사용한 강요’, ‘젠더 편견적 말과 태도’, ‘동의 없는 자의적 사용’ 요인과 높은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경계침범이 개인의 통제·지배 욕구가 강할수록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경계존중의 결여는 단순한 인식 부족이 아니라 타인을 지배하려는 심리적 성향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경계침범은 보다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다름 불인정 및 동조 압박’ 요인이 ‘자기희생’, ‘과순응’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결과는, 관계 유지와 소속 욕구가 강한 문화적 맥락에서 개인이 경계를 약화시키거나 경계침범을 묵인·수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조화와 동질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러한 과잉 순응은 미덕으로 평가되기도 하나, 누적될 경우 정서적 소진이나 위계적 관계의 고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화적 영향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맞물려 강화되기도 한다. 한승희와 정소희(2025)는 거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대학생일수록 자신에 대한 경계침범을 감내하며 자기희생적·과순응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때로는 오히려 공격적 방식으로 경계침범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경계침범이 단순히 타인의 침범행위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 유지와 소속에 대한 불안 속에서 타인의 경계침범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수용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경계침범은 힘의 불균형과 문화적·심리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젠더감수성 척도 역시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태도, 성적 권리침해에 대한 민감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준거척도로 활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젠더 관련 감수성이 경계침범 인식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안상수, 김금미, 2008). 본 연구에서 모든 요인이 젠더감수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특히 ‘젠더 편견적 말과 태도’ 요인이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본 척도가 젠더 관련 영역에서도 타당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젠더감수성이 성적 불평등과 권리침해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다룬다면, 경계존중인식은 성별뿐 아니라 연령, 지위, 친밀도 등 다양한 관계 맥락에서 타인의 사적 영역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보다 확장된 개념적 범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성별 및 학년 간 경계존중인식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는 경계존중인식이 단순히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사회화와 학습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 여성은 대부분의 요인에서 남성보다 높은 경계존중인식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성인지감수성에서 여성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김경숙, 김한결, 선우현, 2022; 윤지원, 2023). 또한, 4학년은 일부 요인(‘동의 없는 신체접촉 및 성적 사생활 침해’, ‘다름 불인정 및 동조 압박’, ‘위력을 사용한 강요’)에서 1학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인식을 나타냈다. 이는 경계존중인식이 반복적인 교육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실천적 개입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집단 명분에 의한 소수자 배제’ 요인은 성별과 학년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인식이 개인의 특성이나 가치관보다는 구조적 신념이나 사회문화적 편견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즉, 집단 명분에 의한 소수자 배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외면하는 집단이기주의와 집단을 내세워 개인의 고유성이나 가치, 선택을 억눌러 온 한국 사회의 문화와 관련 있을 수 있다. 한국사회도 점점 더 다양성이 늘어나는 만큼 이 요인의 점수가 높은 대학생들의 경우 개별성에 대한 존중과 관용, 상대방의 처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척도는 젠더, 권력, 공감, 사회화, 문화적 신념 등이 교차하는 경계존중인식의 다차원적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예절 수준의 규범 인식을 넘어, 사회적 감수성과 권력 불균형에 대한 민감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대학생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문항을 개발하고 문화적·사회적 맥락을 반영한 7가지 요인을 구성함으로써, 기존의 서구 중심 또는 단일 차원적 척도와 구별되는 강점이 있다. 아울러 본 척도는 대학 생활의 다양한 장면에서 경계존중인식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개입 전후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특히 친밀한 관계나

위계적 구조, 집단문화 속에서 간과되기 쉬운 경계존증인식을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상담자와 교육자가 실제 맥락에 맞는 개입 방안을 설계하도록 돕는다. 또한 본 척도의 세분화된 침범양상을 기반으로 특정 영역의 인식 제고와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계존증은 개인적 태도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구조와 문화적 규범이 맞물려 형성되는 과제이므로, 교육·정책·문화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학 현장에서는 이 척도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권센터에서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단과대학별·학년별 경향을 파악하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맞춤형 인권·성인지 교육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에서는 ‘폭력’이라는 결과 이전 단계에서 경계침범에 대한 인식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교육이 단순한 규범 전달에 머물지 않고 관계 속 경계 인식과 존중 행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상담센터에서는 대인관계문제나 갈등 상황을 다루는 과정에서 학생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상담 목표와 접근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양 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활동에서도 본 척도를 활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점검하고 경계존증 관련 학습을 강화할 수 있다. 예컨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자기결정권’, ‘관계성 시민교육’, ‘건강한 대인관계와 경계존중’, ‘리더를 위한 경계존중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교양·특강 프로그램이나 인권센터 및 학생상담센터가 주관하는 ‘경계존중 주간 캠페인’, ‘건강한 관계 원데이 클래스’ 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경계존중 수준을 성찰하고 관계 속 경계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나아가 대학 차원에서는 경계존중 문화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단과대학·부서·집단별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조직과 문화 전반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본 척도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지도 원칙, 인권친화적 규정, 구성원 행동지침 등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면 보다 평등하고 인권친화적인 대학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항 개발을 위한 질적 탐색은 서울 지역 2개 대학과 대구·경북 지역 3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편의표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후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픈모집 방식으로 진행하여, 성별과 학년 간 균형을 고려한 표집 설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역과 전공의 비율을 완전히 균등하게 반영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제시된 기준을 전국 대학생 전체 집단에 일반화하기에는 부분적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역과 대학 유형을 포괄함으로써, 기준의 대표성과 적용 범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원생, 군 복무자, 취업 준비생, 직장 초년생 등 다양한 청년 집단과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발달 단계별 비교 연구를 통해, 경계존증인식의

발달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차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상황이나 연애 경험 등 개인적 배경 변인에 따른 경계존중인식의 차이를 검토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p > .05$).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성별과 학년 간 비교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변인을 포함하여, 경계존중인식이 실제 대인관계 행동이나 관련 심리 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척도의 타당성과 활용 가능성을 한층 심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인식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나 관찰 연구를 병행하여, 경계존중에 대한 인식, 태도, 실제 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척도는 대학 환경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하였기에, 직장, 군대, 지역사회 등 다른 사회적 맥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항의 조정과 추가적인 타당화 절차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경계존중인식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분석한 선구적 시도라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대학 내 상담, 교육, 인권 정책 수립에 있어 구체적인 진단과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실용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척도가 청년 집단 전반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경계존중 문화를 제도적·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는 다양한 사회집단과 맥락으로 범위를 확장하여 교육적·정책적·문화적 차원에서 실천 가능한 전략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이러한 후속 연구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경북대학교 인권센터 (2022). **대학 내 인권침해 피해경험 실태조사 문항 개발 연구 보고서**. 대구: 경북대학교 인권센터.
- 고려대학교 한국어대사전 (2009). '프라이버시'. 네이버 국어사전. <https://ko.dict.naver.com>에서 2025년 8월 9일 인출.
- 김경숙, 김한결, 선우현 (2022). 청소년의 성별·학년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 차이 연구. **인문사회** 21, 13(2), 705-719.
- 김민규, 박수정, 윤채빈 (2016). 한국형 여가중독 척도의 표준화 연구: 대학생을 중심으로. **여가학 연구**, 14(3), 1-16. doi:10.22879/slos.2016.14.3.1
- 김성현, 김성희 (2007). 관용성 척도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상담학연구**, 8(3), 793-806.
- 김아영 (2002). 학업동기 척도 표준화 연구. **교육평가연구**, 15(1), 157-184. doi:10.15703/kjc.8.3.200709.793
- 텔키이루다 (2018.4.3). 경계존중 교육 시급하다. Fun한 사이버세상. <https://fancyberworld.tistory.com/142>에서 2025년 8월 9일 인출.
- 안상수, 김금미 (2008). 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 성평등의식, 적극적 조치, 공정성 지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299-324. doi:10.18205/kpa.2008.13.3.004
- 양병화 (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 여성가족부 (2025.1.15). 장애 아동·청소년 특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강사 역량강화 공동 연수 개최.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10476에서 2025년 8월 9일 인출.
- 오승현 (2023). **오늘 몇 번의 동의를 구했나요?: 건강한 관계를 위한 경계존중 수업**. 파주: 사계절.
- 위초롱, 권순동 (2017). 개인정보 유출의 통제가능성 인지가 정서 및 행동의지에 미치는 영향: 외부해킹과 내부유출 비교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46(6), 1555-1576. doi:10.17287/kmr.2017.46.6.1555
- 윤지원 (2023). 대학생의 성인지 감수성, 성 태도, 성 의사소통이 성적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안전문화연구**, 22, 95-108. doi:10.52902/kjsc.2023.22.95
- 이호근, 이상훈 (2009). 정보 프라이버시의 향후 연구방향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 분석. **정보화 정책저널**, 16(2), 3-26.
- 전상민 (2015).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감정과 행동 반응: Mehrabian과 Russell의 S-O-R 모델을 바탕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16(1), 105-123. doi:10.21074/kjlcap.2015.16.1.105

- 조수선 (2010). SNS 미디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인식 및 행태에 관한 연구: 대학생 이용집단 FGI를 통한 선행적 연구.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5(3), 144-179.
- 중앙일보 (2018.3.31). 남의 몸에 손대면 금지선 침해... 경계 존중 교육 시급하다. 중앙SUNDAY 심층기획.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494348>에서 2025년 11월 7일 인출.
- 지연정, 문명현, 박지호, 김병주 (2023). 대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개선을 위한 예방대책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4(2), 33-65. doi:10.14816/sky.2023.34.2.33
- 하경해 (2018). *청소년의 부모·또래 요인, 인터넷음란물 접촉, 성인지감수성 간의 관계 및 성교육의 조절효과*. 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청소년 성문화를 통해 본 성폭력실태 및 대책*.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승희, 김영자, 정소희, 정지량 (2025). 대학생용 성인지감수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32(2), 187-216. doi:10.21509/KJYS.2025.02.32.2.187
- 한승희, 정소희 (2025). 대학생이 지각한 적대적 및 통제적 부모양육태도가 관계적 공격성 및 자기침묵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와 이분법적 사고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6(3), 213-236. doi:10.15703/kjc.26.3.202506.213
- 홍상환, 조용래, 권정혜, 박은영, 김영환,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임상심리학회지*, 21(4), 923-940.
- Altman, I. (1975). *The environment and social behavior: Privacy, personal space, territory, crowding*. Monterey, CA: Brooks/Cole.
-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Education. (2025). Consent and respectful relationships education (CRRE). *GOV.AU*. Retrieved August 9, 2025, from <https://www.education.gov.au/schooling/consent-and-respectful-relationships-education-crre>
- Browne, M. W., & Cudeck, R. (1992).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1(2), 230-258. doi:10.1177/0049124192021002005
- Byrne, B. M. (1994).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EQS and EQS/Windows: Basic concepts, applications, and programming*. Thousand Oaks, CA: Sage.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doi:10.1207/S15328007SEM0902_5
- Cupach, W. R., & Spitzberg, B. H. (2000). Obsessive relational intrusion: Incidence, perceived severity, and coping. *Violence and Victims*, 15(4), 357-372. doi:10.1891/0886-6708.15.4.357

- Department for Education. (2025). Relationship and sex education (RSE). *GOV.UK*. Retrieved August 9, 2025, from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relationships-education-relationships-and-sex-education-rse-and-health-education>
- Dickeson, E., Roberts, R., & Smout, M. F. (2020). Predicting boundary violation propensity among mental health professionals.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27*(6), 814-825. doi:10.1002/cpp.2465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doi:10.2307/3151312
- Fosco, G. M., Grych, J. H., Harold, G. T., & Cummings, E. M. (2014). Cascading effects of interparental conflict in adolescence: Linking threat appraisals, self-efficacy, and 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7*(1), 239-252. doi:10.1017/S0954579414000704
- Gamache, D., Savard, C., Faucher, J., & Cloutier, M. È. (202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alking and obsessive relational intrusions questionnaire (SORI-Q).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21-22), NP19420-NP19446. doi:10.1177/08862605211042808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4th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 Anderson, R. E. (2010). *Multivariate data analysis*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Hoffman, M. S., Hanson, B. J., Brotherson, S. E., & Zehnacker, G. (2021). Boundaries: A boundary-setting and social competence program for parents and youth. *Journal of Human Sciences and Extension, 9*(3), 229-252.
- Javidi, H., Maheux, A. J., Widman, L., Kamke, K., Choukas-Bradley, S., & Peterson, Z. D. (2020). Understanding adolescents' attitudes toward affirmative consent. *The Journal of Sex Research, 57*(9), 1100-1107. doi:10.1080/00224499.2019.1711009
- Meng, X. (2024).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privacy boundary turbulence in technological contexts: Constructing a measurement scale.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61*(3), 103658. doi:10.1016/j.ipm.2024.103658
- Pett, M. A., Lackey, N. R., & Sullivan, J. J. (2003). *Making sense of factor analysis:*

- The use of factor analysis for instrument development in health car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Pope, K. S., & Vasquez, M. J. T. (2016). *Ethics in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A practical guide* (5th e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Swiggart, W., Feurer, I. D., Samenow, C., Delmonico, D. L., & Spickard Jr, W. A. (2008). Sexual boundary violation index: A validation study.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15*(2), 176-190. doi:10.1080/10720160802055939
- Trepte, S., & Masur, P. K. (2023). Definitions of privacy. In S. Trepte, P. K. Masur (Eds.), *The Routledge handbook of privacy and social media* (pp. 3-15). Routledge. doi:10.4324/9781003244677-2
- UNESCO. (2018). *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 An evidence-informed approach*. Paris: UNESCO.
- Wang, L. H., Rice, R. E., Liu, X., Hagen, I., & Zamanzadeh, N. (2025). Mastering boundaries: Differences in online privacy boundary phenomena across digital devices and years. *Behaviour & Information Technology, 44*(15), 3750-3770. doi:10.1080/0144929X.2024.2448706
- Warren, S. D., & Brandeis, L. D. (1890). The right to privacy. *Harvard Law Review, 4*(5), 193-220.
- Westin, A. F. (1967). *Privacy and freedom*. New York, NY: Atheneum.
- Wisniewski, P. J., Islam, A. K. M., Richter Lipford, H., & Wilson, D. C. (2016). Framing and measuring multi-dimensional interpersonal privacy preferences of social networking site users.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38*(1), 235-258. doi:10.17705/1CAIS.03810
- Wisniewski, P. J., & Page, X. (2022). Privacy theories and frameworks. In B. P. Knijnenburg, X. Page, P. J. Wisniewski, H. R. Lipford, N. Proferes, & J. Romano (Eds.), *Modern socio-technical perspectives on privacy* (pp. 15-41). Cham, Switzerland: Springer. doi:10.1007/978-3-030-82786-1_2
- Willis, G. B. (2005). *Cognitive interviewing: A tool for improving questionnaire desig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ABSTRACT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the interpersonal boundary-respect awaren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Han, Seunghee* · Kim, Youngja** · Jeong, Sohee*** · Cho, Sungsun****

Boundaries refer to psychological, physical, and social lines that delineate what is perceived as acceptable and what is considered intrusive with respect to others' privacy and personal domains, serving as a concept for protecting individuals' self-determination and privacy. Although boundary setting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s based on individuals' perceptions and decisions, what is recognized as a boundary violation is influenced by socially shared values and norms. Such boundary violations may extend beyond interpersonal conflicts and develop into issu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college environments characterized by hierarchy and group norms.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systematically examin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oundary respect and the underlying structure of these percep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scale that measures interpersonal boundary-respect awarenes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Initial items were constructed based on open-ended responses regarding students' experiences of boundary violations in university life.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ducted in the preliminary survey ($n=330$) yielded a seven-factor, 30-item structure, which was replicated in the main survey ($n=699$). The model's fit was verified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was established through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Criterion validity was confirmed through correlation analyses with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 scale and the gender sensitivity scale. Results of the multi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emonstrated configural and metric invariance across gender. By integrating data from the preliminary and main surveys ($n=1,029$), norms were developed, and four awareness levels were established. In addition, group comparisons by gender and academic year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levels of boundary-respect awareness across some of the identified factors. The final seven factors were labeled as "Invasion of Privacy and Disclosure of Sensitive Information," "Non-consensual Physical Contact and Sexual Privacy Violation," "Exclusion of Minorities Based on Group Justification," "Denial of Differences and Pressure to Conform," "Coercion through Power," "Gender-biased Language and Attitudes," and "Unauthorized Use of Personal Belongings." In this study, boundary respect was conceptualized as an attitude and behavior to respect others' personal domains and avoid intrusion. This scale offers theoretical and practical utility as a systematic tool for assessing university students' awareness of interpersonal boundary respect.

Key Words: boundary respect, boundary violation, privacy, college students, scale development, standardization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Human Rights Center, Expert Advisor, hrc6400@knu.ac.kr

** Daegu Technical College, Assistant Professor, dopeung860@hanmail.net

*** Daegu University, Professor, jjid@hanmail.net

**** Daegu Haany University·Student Counseling Center, Researcher, saintsun@hanmail.net